

뛰면서 공부하는 젊은 영업인들

‘책누리’ ‘베스트 클럽’ ‘좋은 청년’ ‘해오름’ 등 소모임 활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는 분야가 마케팅이다. 이러한 변화는 출판업도 마찬가지. 출간된 책이 독자들의 손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담당하는 출판 영업인들의 능력에 따라 책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출판영업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가 달라지면서 영업인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소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 아닌 일종의 스터디 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출판마케팅 관련 세미나도

영업자들의 모임 중 활동이 두드러지는 곳은 대략 4,5개 정도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있어 출판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 ‘책누리’(회장 성홍진, 문이당).

출판영업과 영업자들의 자기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93년 6월 첫모임을 가진 이래 성홍진 회장이 이끄는 3기 체제로 접어든 소모임 책누리는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20명의 회원들이 한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책누리의 가장 큰 특징은 매 모임 때마다 출판마케팅에 관련된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세미나식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지난 3기 1차모임 때는 ‘영업매뉴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3명의 회원이 교재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선배 영업인과 서점인을 초청 자

90년대 들어 출판영업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가 달라지면서 영업인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소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문학출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독서토론 모임 ‘베스트 클럽’.

유토론 시간도 함께 가졌다.

연속 3회 이상 무단불참을 하거나 출판영업인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제명시킨다는 내용을 회칙에 명기하고 있는 책누리는 옹서버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옹서버로 참석한 뒤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출판 영업인의 정체성’이다. 회장 성홍진씨는 “출판영업인의 자기발전은 자신의 업무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책누리는 국

내 출판계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영업인의 위상과 역할 만들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성회장은 “회원들 스스로 ‘자기발전’이라는 당위성을 절실하게 인정하고 시작한 모임이기 때문에 높은 참석율과 진지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모임의 성격을 밝힌다.

책누리의 회원은 성홍진(문이당) 이성훈(청아) 차우석(현암사) 신창우(김영사) 유승완(살림) 홍용준(퇴설당) 이재익(우석) 백흥구(비전) 장용석(그린) 고재성(한빛) 김정민(열음사) 정병인(동학사) 이덕수(책

세상) 정현만(홍익재) 정도준(정신세계사) 김대환(가고) 이종일(자유시대사) 주정관(훈민정음) 표도연(프리미엄북스) 김완중(뜨인돌) 등 20명.

‘햇볕회’에서 이름을 바꾼 ‘베스트 클럽’(회장 임태주, 현암사)은 주로 문학출판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젊은 영업인들의 모임이다. 95년 5월 처음 모임을 가진 이후 최근 ‘베스트’와 ‘스터디’의 뜻을 담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모임은 기획, 홍보, 마케팅에 대한 실질정보를 교환함과 동시에 문학출판사 영업자로서의 소양을 갖기 위한 독서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윤리의 재정립

김택길 지음/신국판/값 10,000원

일반적 통념이 조선시대의 전통 유교 윤리를 도덕적 모범으로 보기 쉽지만 거시적으로 이 시대의 윤리를 평가하자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仁義禮智와 같은 전통적 덕목의 정신이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적절히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도덕률의 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윤리를 「삶의 지혜」로 정의하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에 적합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깊이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

김광수 지음/신국판/값 15,000원

물리학이 발달해도 공학이 없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듯 논리를 써먹기 위해서는 논리공학, 즉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논리가 주장들의 구조와 관계를 고도로 추상화시켜 이해하려는 「형식」인데 비해 비판적 사고는 주장들이 어떤 이유때문에 얼마만큼 정당화되는가를 판단하려는 내용이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는 진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황경식 지음/신국판/값 15,000원

근세 이후 윤리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윤리로부터 사회윤리로의 이행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사회 구조나 체제가 개인적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그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여기에 사회 윤리적 문제가 개입된다. 롤스의 이론을 인용, 인간이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듯이 사회구조의 역학관계를 인간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정신적인 이념의 공동체가 전체 사회의 윤리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직하철학

곽신환 옮김/신국판/값 15,000원

직하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날 낚이 정리하였으며 대립되는 견해들도 놓치지 않고 수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의 직하학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하학에 대한 개요를 정리, 철학의 지평(地平)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을 상당수 소개, 또 직하의 문헌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관자(管子)] [황로백서(黃老帛書)] 그리고 [여씨춘추(呂氏春秋)]를 다루고 있다.



'마케팅'을 주제로 한 토론 모임 '책누리'.

이들이 토론에 부치는 책은 《한국문학사》 《태백산맥》 등의 문학류가 주종을 이루지만 가끔씩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와 같은 예술이론서도 등장한다. 회장 임태주씨는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출판영업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질과 소양”이라고 강조한다.

총 12명이 활동하고 있는 베스트 클럽은 한달에 두번씩 모임을 갖고 회비의 일부는 적립한다. 동년배들끼리 모인 베스트 클럽은 대학의 서클처럼 서로 격의 없이 지낸다. 한달에 두번 모임 때 뿐만 아니라 종종 저녁시간에 편안하게 모여서 술잔을 나누는

친구들이기도 하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석(푸른나무)씨는 “모임에 나와 책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실제 영업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단순한 친목 넘어 미래지향적 성향

출판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이 무서운 청년들은 임태주(현암사) 김진석(푸른나무) 우이명(해냄) 윤세호(문학사상) 김석현(열림원) 이덕수(책세상) 한장수(열린책들) 김경언(창비) 정대영(민음사) 장은성(솔) 박재길(동아출판사) 강승일(무한) 등

12명.

94년 봄 출판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영업자들이 모여 만든 ‘좋은 책을 일구는 청년들의 모임’(회장 이춘호, 창작과비평)은 친목과 스터디를 함께하는 모임이다. 역시 30대 초 중반의 젊은 영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좋은 청년’은 한달에 두번 출판마케팅 관련 교재를 선정 토론을 하고 서점정보 등을 공유한다.

이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종석씨(새터)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좋은 청년’은 요

즈음 개방시대 출판영업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공동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좋은 청년’의 회원은 이춘호(창작과비평) 박종석(새터) 마명기(일과 누리) 심찬식(돌베개) 정광일(살림터) 등이다.

여성영업자들의 모임인 ‘해오름’은 91년 남성중심의 출판영업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만든 모임이다. 결혼과 이직 등으로 원년멤버들의 상당수가 출판계를 떠났지만 여전히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해오름의 회원들은 영업은 물론 기획 편집 홍보까지 해내는 팔방미인들이 많다.

회장이 없는 체제로 운영되는 이 모임 회원 중 현재 출판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고진숙(가림) 김은희(동천사) 권양미(재원) 장락(홍정현) 임미숙(정신세계) 등이다.

이밖에도 젊은 영업자들의 소모임은 공개를 꺼리는 모임까지 포함 10개가 넘는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영업자들의 모임은 친목을 뛰어넘어 불황에 허덕이는 출판업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판계 역시 이들의 소모임 활동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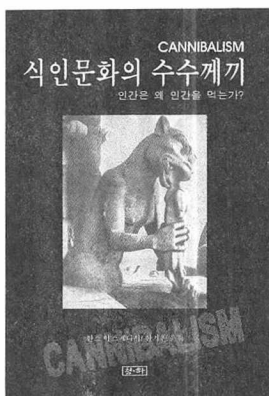
—허연 기자

이들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출판마케팅에 관련된 주제 토론이나 독서토론, 베스트셀러 분석 등 스터디 그룹의 성격을 띤다.

인간은 왜 인간을 먹는가?

전화 322-2011~3 **청·하** 나눔과 더함이 함께하는 책

식인문화의 수수께끼



한스 아스케나시 / 한기찬 옮김
신국판 / 값 7,000원

〈양들의 침묵〉·〈얼라이브〉를 능가하는 충격과 함께, 우리 자신의 숨겨진 본능으로 떠나는 지적여행!

이국의 정서와 결합된 식인풍습에 관한 포괄적인 역사서

국내 최초 CANNIBALISM

식인풍습은 이 시대의 마지막 금기사항인가? 사람이 인육(人肉)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식인제물에 주저없이 칼을 대는 인간의 심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도덕으로 무장한 채 인류 최대의 금기로 단죄하며 가혹한 징벌을 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식인’이라는 말 자체와는 달리 그 진상은 극한적이지도, 그다지 간단한 일도 아니다. 식인행위의 심리학적 측면,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먹는가’의 문제를 이 책의 전편을 통해 충격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